

아오시마 신사

역사

예로부터 신성한 섬으로 여겨졌던 아오시마섬은 신이 머무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. 아오시마섬에 처음으로 종교 시설이 지어진 것은 헤이안 시대(794-1185)였습니다. 이후 에도 시대(1603-1867)에 들어서면서 오비번(지금의 미야자키현 남부 연안 지역)의 다이묘(영주)가 신체를 모시는 건물인 샤텐의 유지 및 확장을 담당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에 이르렀습니다. 1737년에는 당시 신관이나 고관 외에는 출입할 수 없었던 아오시마섬의 신성한 물가의 출입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.

신들

아오시마 신사에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, 시오쓰치 세 명의 신이 모셔져 있습니다.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의 사랑 이야기는 일본 신화와 역사를 기록한 8 세기의 역사서인 고사기(古事記)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사냥의 명인이었던 야마사치비코와 해신의 딸인 도요타마히메는 전설 속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의 조부모입니다. 신화 속 시오쓰치는 훗날 부부의 연을 맺는 야마사치비코와 도요타마히메가 만나는 계기로 등장합니다.

축제

아오시마 신사에서는 연중 내내 축제가 개최됩니다. 봄 축제(시마비라키 축제), 여름 축제, 가을 예대제, 겨울 축제가 치러지며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. 여름 축제는 역병, 병충해, 풍수해와 같은 모든 재앙을 막고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음력 6 월 17 일과 18 일(양력으로 7 월 중순부터 8 월 초 사이)에 치러집니다. 미코시 가마(신을 태운 가마)를 올린 선박을 선두에 배치한 선단이 섬을 한 바퀴 항해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. 축제가 끝날 무렵에는 젊고 건강한 참가자들이 미코시 가마를 짊어지고 육지에 올라옵니다.

겨울 축제는 1 월 둘째 주 월요일에 치러지며 야마사치비코의 신화 중에서 일부 장면을 재현합니다. 도요타마히메의 아버지인 해신의 궁전에서 만난 도요타마히메와 야마사치비코는 3 년 동안 궁전에서 생활하지만, 결국 야마사치비코는 상어의 등에 올라 고향인 육지로 돌아가게 됩니다. 육지에 도착한 야마사치비코는 환희에 찬 군중의 환대를 받는데, 이때 마중나왔던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옷을 입을 새도 없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서둘러 뛰쳐나왔다는 전설을 본떠 살바와 비슷한 혼도시 차림의 참가자들이 차가운 파도 속을 뛰어들어 신을 향한 인사의 의미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릅니다.

섬

아오시마섬은 둘레 약 1.5km 의 섬으로 대부분이 정글 같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섬에는 226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지만, 그중 27 종은 열대 및 아열대 식물입니다. 그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야자수인 비로자야는 예로부터 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. 아오시마섬은 기묘한 모양의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데, 그 모습을 멀리서 보면 거대한 빨래판으로 보인다고 하여 ‘도깨비의 빨래판’으로 불립니다. 수백만 년 전, 지각 변동과 육지 융기로 인해 해저에서 올라온 암석은 파도 침식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이랑 모양으로 형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